

여성 작업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근무 환경에 관한 연구

이재홍¹, 송예원*, 차태현³

¹가톨릭상지대학교 작업치료과, ²유성웰니스병원 작업치료실, ³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A Study on Job Stress and Working Environment of Female Occupational Therapist

Jae-Hong Lee¹, Ye-Won Song^{2*}, Tae-Hyun Cha³

¹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atholic Sangji College

²Dept. of Occupational Therapy, Yuseung Wellness Rehabilitation Hospital

³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onyang University

요약 여성 작업치료사의 직무와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여 근무환경 개선, 직무 스트레스 인식, 성희롱 예방교육 및 여성의 작업치료사의 장기간 경제활동 참여 향상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환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현재 작업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신된 185부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무스트레스의 주요 항목은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적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근무로 인해 피로를 느낀다.', '치료 이외의 것까지 신경써야할 때가 있다.' 순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 통증은 손목과 손(90%), 어깨(86%), 목(69.7%), 허리(68.6%)순으로 나타났으며, 손목과 손(63%), 어깨(62.2%), 허리(51.9%) 통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였다. 언어적 성희롱 경험은 71.4%에 이르고 있었으며, 신체적·시각적 성희롱은 48.6%가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항목에서는 '개인과 일의 사이에서 곤란하지 않다.'가 61.1%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상사의 긍정적인 지원(54.6%), 직장동료와의 유대관계유지와 감정 공유(73%)등의 긍정적 응답이 많았다. 여성 작업치료사들이 겪고 있는 직무스트레스, 근골격계 통증, 성희롱 등의 효과적인 대처방법 마련 및 업무 환경 개선이 시급 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이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ssessed female occupational therapist job stress and musculoskeletal pain, and examines the problems caused by sexual harassment, family, and marriage policy. The results provide information to improve work environments, reduce job stress, yield data needed for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examine women occupational therapists' economic activities, and broadly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rough participation. The study subjects were currently employed female occupational therapists. Initially 200 subjects were recruited, of whom 185 returned the study questionnaire. Questions addressing job stress included, 'There are times when one feels that the salary is worth less than the job effort', 'Feel tired due to work.', 'That it is time to pay attention to other therapy.', answered positively in that order. Musculoskeletal pain in the wrist and hand (90%), shoulder (86%), neck (69.7%) and waist (68.6%) were the order of the wrist and hand (63%), shoulder (62.2%) and waist (51.9%) pain resulted in interference with daily life. Verbal harassment was reported by 71.4% and 48.6% reported physical and visual harassment. The most common topics in workplace relations were 'Must choose whether to focus on the individual or work (61.1%).', 'Need for understanding and someone who can share their feelings (54.6%).', and 'Colleagues are willing to listen to my story (73%)'.

Keywords : Female occupational therapist, Job stress, Musculoskeletal pain, Sexual harassment, Workplace Relation, Working conditions

*Corresponding Author : Ye-Won Song(Yuseung Wellness Rehabilitation Hospital)

Tel: +82-10-6482-9412 email: dnjs9412@naver.com

Received October 21, 2016

Revised (1st November 16, 2016, 2nd December 26, 2016)

Accepted February 3, 2017

Published February 28, 2017

1.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1]. 이는 지식·정보산업의 발달과 고령화 사회라는 한국의 특수성으로 인한 결과이며, 여성인력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2]. 하지만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1.0%로 73.4%의 남성보다 낮은 수준이다[3]. 이는 여성의 결혼, 출산 및 육아와 같은 생애사적 사건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조사되고 있다[4,5].

여성은 남성에 비해 차별적 기업문화, 출산 및 육아 부담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해 부담스러운 인식을 가지고 있다[6]. 남성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특성이 다르며, 직위의 불안정, 보상의 결여, 기회 상실 등을 크게 느낄 수 있으며[7], 전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8]. 이는 결국 직무 스트레스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며,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9].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은 노동 집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와 행정의 이원적 명령구조, 구성원들의 이질적 구성, 의료기관 간의 경쟁 심화 등이 결국 보건의료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게 된다[10]. 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 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직종들이 모여 업무를 진행해 나가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 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11].

현재 우리나라의 면허등록 된 의료기사는 총 265,692명으로 이들 중 64.2%인 170,489명이 여성이며, 여성 임상병리사의 경우 46,361명 중 34,131명으로 73.6%, 여성 물리치료사는 44,298명 중 29,059명으로 65.6%를 차지하고 있다[12]. 작업치료사는 보건의료 전문직의 하나로 대부분의 시간을 직접 환자와 대하며,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문제 외에도 환자들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동작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13]. 더 나아가 그들이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작업치료사의 직무 태도는 치료서비스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14].

하지만 작업치료사는 자원과 요구, 전문적 가치, 보상, 환자 및 동료와의 관계, 스트레스와 신체적 증상(통증) 및 심리적 증상, 보수 등으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를 겪게 되며[15], 임신과 육아, 이사, 과도한 문서업무, 승진이나

높은 봉급에 대한 욕구 등으로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고 하였다[16].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1], 우리나라 여성 작업치료사는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 작업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2006년 이후이며, 현재 작업치료 면허 소지자 수가 많지 않고, 사회적으로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여성 작업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 근골격계, 성희롱, 가족·혼인 정책들로 인한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여 근무 환경 개선,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 인식과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여성의 작업치료사의 장기간 경제활동 참여 향상에 필요한 자료와 환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2014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작업치료를 실시 중인 병원 및 재활 관련 기관 등을 중심으로 설문지 우편발송 및 회수를 통한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은 현재 작업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 작업치료사들로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신된 185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내용을 작업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임상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 연구 목적과 실정에 맞게 수정했다. 설문지 초안 작성 후 작업치료 전공 교수 1명, 작업치료 전공 대학원생(9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에 수정이 필요한 문항과 내용이 모호한 부분에 대한 조언을 받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응답자 기초 정보를 별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다음과 같다.

2.2.1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와 관련된 문항 24개를 선택 수정한 측정 도구를 사용했다[8]. 본 설문

지는 25문항으로 ‘전혀 아니다(1점)’부터 ‘아주 자주 그렇다(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는 리커트(Likert) 형태의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2.2 근골격계 통증

근골격계 통증을 확인하기 위해 Standardized Nordic musculoskeletal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18]. 본 설문지에서의 통증은 감염, 외과적 손상, 내과적 질환이 아닌 근골격계에서 기인한 문제를 의미한다.

2.2.3 성희롱 경험 정도

성희롱 경험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병원 간호사에 대한 성희롱 실태조사[19]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통해 성희롱 실태에 관한 13문항을 참고하여 여성 작업치료사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 및 보완을 하여 사용하였다.

2.2.4 가족친화적 문화

가족친화적 정책의 시행 및 이용 여부를 파악하고자 Morgan과 Milliken[20]이 개발하고, Kang과 Lim[21]이 수정·보완한 것을 Lee[22]가 ‘정책의 시행’에 ‘정책의 이용 여부’영역을 추가 구성한 총 15문항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무 스트레스, 근골격계, 성희롱, 가족/혼인 정책들로 인한 문제를 확인하여 보기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들의 연령은 평균 25.31 ± 2.67 세로 21~25세 116명(62.7%), 26~30세 60명(32.4%), 31~35세 9명(4.9%)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3년제 대학교 졸업이 80명(43.2%), 4년제 대학교 졸업 93명(50.3%), 대학원 졸업 이상 12명(6.5%)으로 분포하였다. 결혼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기혼 15명(8.1%), 미혼 170명(91.9%), 자녀 유무

는 9명(4.9%)이 있었으며, 175명(94.6%)은 자녀가 없었다. 또한 대상자들의 임상경력은 6개월 미만 10명(5.4%), 6~12개월 27명(14.6%), 12~24개월 31명(16.8%), 24~48개월 58명(31.4%), 48~60개월 29명(15.7%), 60개월 이상 30명(16.2%)이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Spec.	Respondents	Percentage
Age(year)	21~25 years	116	62.7
	26~30 years	60	32.4
	31~35 years	9	4.9
Education	College	80	43.2
	University	93	50.3
	Graduate or higher	12	6.5
Marriage	Married	15	8.1
	Single	170	91.9
Children	In children	9	4.9
	No children	175	94.6
Experience	< 6 months	10	5.4
	6~12 months	27	14.6
	12~24 months	31	16.8
	24~48 months	58	31.4
	48~60 months	29	15.7
	60 months ≥	30	16.2

3.2 대상자의 근무환경

주 치료대상은 성인이 163명(88.1%), 소아가 19명(10.3%), 성인과 소아를 병행하는 경우가 3명(1.6%)이었으며, 정규직 151명(81.6%), 계약직 31명(16.8%), 인턴 3명(1.6%)의 고용형태를 나타냈다. 이들의 근무기관은 재활병원이 147명(7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병원 19명(10.3%), 기타 8명(4.3%), 요양원 3명(1.6%), 센터 3명(1.6%), 학교 2명(1.1%), 보건소 2명(1.1%), 복지관 1명(.5%)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Work Environment of Participants

	Spec.	Respondents	Percentage
Therapeutic target	Adult	163	88.1
	Children	19	10.3
	Both	3	1.6
Working institution	General hospital	19	10.3
	Rehabilitation hospital	147	79.5
	Nursing home	3	1.6
	School	2	1.1

Employment Type	Development center	3	1.6
	health center	2	1.1
	Welfare center	1	.5
	Others	8	4.3
	Regular worker	151	81.6
	Contract worker	31	16.8
	Internship	3	1.6

3.3 대상자의 근무여건

급여수준은 월 150~200만원이 122명(65.9%)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150만원이 35명(18.9%), 200~250만원이 27명(14.6%), 250~300만원이 1명(.5%)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하루 평균 건수는 11~15건이 170명(91.9%)으로 대부분이 11~15건을 치료하고 있었으며, 6~10건 8명(4.3%), 1~5건 6명(3.2%), 16건 이상이 1명(.6%)으로 나타났으며, 토요일휴무를 보장받는 대상자는 20명(10.8%)에 불과하였으며, 164명(88.6%)은 토요일 격주 휴무를 시행하고 있었다[Table 3].

Table 3. Working Conditions of Participants

Spec.		Respondents	Percentage
Salary	₩1,000,000 ~ 1,500,000	35	18.9
	₩1,500,000 ~ 2,000,000	122	65.9
	₩2,000,000 ~ 2,500,000	27	14.6
	₩2,500,000 ~ 3,000,000	1	.5
The average number of therapy	< 5 case	6	3.2
	6 ~ 10 case	8	4.3
	11 ~ 15 case	170	91.9
	16 case ≥	1	.6
Saturday work	Not working	20	10.8
	Working	164	88.6

3.4 여성작업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

여성 작업치료사들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여성 작업치료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는 67.97±8.82점이었으며, 주요 항목으로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적다고 느낄 때가 있다.’가 3.84±.86점, ‘근무로 인해 피로를 느낀다.’가 3.83±.70점, ‘치료 이외의 것까지 신경써야할 때가 있다.’가 3.48±.67점으로 나타났다.

Table 4. Work stress of Female Occupational Therapists

M±SD	Main sub-items
67.97±8.82	There are times when one feels that the salary is less than working(3.84±.86).
	Feel tired due to work(3.83±.70).
	That it is time to pay attention to the other therapy(3.48±.67).

3.5 여성작업치료사의 근골격계 통증

여성 작업치료사들의 근골격계 통증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손목과 손에서 167명(90%), 어깨에서 159명(86%), 목에서 129명(69.7%), 허리에서 127명(68.6%)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 또한 손목과 손 117명(63%), 어깨 115명(62.2%), 허리 96명(51.9%)은 통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였다.

Table 5. Musculoskeletal Pain of Female Occupational Therapists

Spec.	Whether pain		Whether inconvenience in daily life	
	Yes	No	Yes	No
Neck	129(69.7%)	56(30.3%)	77(41.6%)	108(58.4%)
Shoulder	159(86%)	26(14.1%)	115(62.2%)	70(37.8%)
Elbow	22(12%)	163(88.1%)	15(8.1%)	170(91.9%)
Wrist/Hand	167(90%)	18(9.7%)	117(63%)	68(36.8%)
Back	62(33.5%)	123(66.5%)	42(22.7%)	143(77.3%)
Waist	127(68.6%)	58(31.4%)	96(51.9%)	89(48.1%)
Hip/Thigh	23(12.4%)	162(87.6%)	9(4.9%)	176(95.1%)
Knee	75(41%)	110(59.5%)	46(25%)	139(75.1%)
Ankle	59(31.9%)	126(68.1%)	36(19.5%)	149(80.5%)

3.6 여성작업치료사의 성희롱 실태

여성 작업치료사들의 언어적 성희롱 경험은 132명(71.4%)에 이르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49.2%가 ‘화가 나고 매우 불쾌하다.’라고 응답하였고, 이에 대한 대처로 ‘그만하라고 얘기’하거나(36.8%), ‘무시’를 했다(28.1%). 여성 작업치료사 중 48.6%가 신체적·시각적 성희롱을 경험했으며, 40.5%가 ‘화가 나고 불쾌’해하였다. 성희롱을 목격하거나 들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69.7%였으며, 대부분 치료실에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69.2%). 이들 중 46.5%는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일이며, 특히 13%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희롱의

주체는 68.6%가 환자라고 답변하였으며, 최근 1년 동안 목격하거나 들은 횟수가 2~5회(43.2%), 6~10회(14.1%)에 달하였다[Table 6].

3.7 여성작업치료사의 직장 내 관계

여성 작업치료사들의 직장 내 관계에서 직장 문화적으로 개인과 일의 사이에서 곤란하지 않은 ‘비교적 그렇

Table 6. Sexual Harassment of Female Occupational Therapists

Spec.	Yes	No	Sub-items		
Verbal harassment	132(71.4%)	53(28.6%)	What was your feeling?	Very unpleasant angry.	91(49.2%)
				some uncomfortable.	36(19.5%)
			How do you respond?	Told to stop.	68(36.8%)
				Ignored.	52(28.1%)
Physical and visual harassment	90(48.6%)	92(49.7%)	What was your feeling?	angry and offended.	75(40.5%)
				Was perplexing quandary.	18(9.7%)
Seen, heard experiences of harassment	129(69.7%)	52(28.1%)	Where did you do that?	Therapy room.	128(69.2%)
			When did you do that?	Was less than 12 months.	86(46.5%)
				Current continue.	24(13.0%)
			Who did it?	Client.	127(68.6%)
			Within the last year frequency	2-5 times.	80(43.2%)
				6-10 times.	26(14.1%)

Table 7. Workplace Relations of Female Occupational Therapists

Spec.		Not at all.	Some do not.	A little	Very much so
Workplace culture	Must choose whether to focus on the individual or works.	38 (20.5%)	113 (61.1%)	33 (17.8%)	1 (.5%)
	there are disadvantages when using individual, family holiday to the problem.	55 (29.7%)	106 (57.3%)	23 (12.4%)	1 (.5%)
	If the individual, the family takes precedence think badly.	30 (16.2%)	97 (52.4%)	55 (29.7%)	3 (1.6%)
	When you find it difficult to balance work and family, and to take an attitude of "is responsible for what their share of their choice."	18 (9.7%)	86 (46.5%)	79 (42.7%)	2 (1.1%)
	Should not be the one associated with the family during working hours.	30 (16.2%)	100 (54.1%)	54 (29.2%)	1 (.5%)
	Working time for chores, overtime, etc. allows them to change holiday plans.	7 (3.8%)	43 (23.2%)	124 (66.5%)	11 (5.9%)
Workplace boss	Listen to my complaints.	7 (3.8%)	41 (22.2%)	108 (58.4%)	28 (15.1%)
	Is critical in my efforts to balance work and family.	38 (20.5%)	124 (67.0%)	19 (10.3%)	4 (2.2%)
	Care should allow the private work.	4 (2.2%)	65 (35.1%)	114 (61.6%)	2 (1.1%)
	Gives advice to give new ideas.	12 (6.5%)	63 (34.1%)	103 (55.7%)	7 (3.8%)
	Instead, it should also now a personal thing.	37 (20.0%)	97 (52.4%)	47 (25.4%)	4 (2.2%)
	Help me when I struggle.	14 (7.6%)	55 (29.7%)	105 (56.8%)	11 (5.9%)
	The understanding and who can share their feelings.	10 (5.4%)	61 (33.0%)	101 (54.6%)	13 (7.0%)
	Feel bad for my needs and as working mothers.	28 (15.1%)	121 (65.4%)	34 (18.4%)	2 (1.1%)
	I think that thanks to the colleagues work life easier.	3 (1.6%)	22 (11.9%)	140 (75.7%)	20 (10.8%)
	Easy to share stories and colleagues.	0 (0%)	14 (7.6%)	137 (74.1%)	34 (18.4%)
Colleague	When a problem arises, there is a companion that you can rely on.	1 (.5%)	22 (11.9%)	134 (72.4%)	28 (15.1%)
	Colleagues are willing to give for my story.	0 (0%)	8 (4.3%)	135 (73.0%)	42 (22.7%)

지 않다.’ 항목이 61.1%로 응답하였고, 일과 가족 양립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비교적 그렇지 않다.’ 46.5%, ‘비교적 그렇다.’ 42.7%로 응답하였다. 직장상사와의 관계에서는 집안일을 위해 휴가 등을 바꾸도록 해주거나, 이해심 있고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는 질문에서 ‘비교적 그렇다.’ 54.6%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는 동료덕분에 의지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항목에서 ‘비교적 그렇다.’가 73.%로 가장 높은 응답률로 나타났다[Table 7].

4. 고찰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작업치료사는 자원과 요구, 전문적 가치, 보상, 환자 및 동료와의 관계, 스트레스와 신체적 증상(통증) 및 심리적 증상, 보수 등으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 작업치료사의 직무 실태에 관하여 비교·분석 하여 그 결과를 통해 향후 여성 작업치료사의 직무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으로 평균 연령은 25.31 ± 2.67 세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3년제 대학교 졸업이 43.2%, 4년제 대학교 졸업 50.3%, 대학원 졸업 이상 6.5%로 분포하였다. 결혼여부에서 기혼 8.1%, 미혼 91.9%이며, 94.6%는 자녀가 없었다. 임상경력 24~48개월이 31.4%로 가장 많았다.

여성 작업치료사들의 직무스트레스는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적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근무로 인해 피로를 느낀다.’, ‘치료 이외의 것까지 신경써야할 때가 있다.’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급여가 낮을수록 직무자율성,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와 일치하며[23], 급여가 작업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임을 보고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15].

통증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손목과 손(90%), 어깨(86%), 목(69.7%), 허리(68.6%) 순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 특히 손목과 손, 어깨, 허리의 통증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까지 지장이 있는 상태였다. 물리치료사의 통증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허리, 어깨, 목과 손목의 순서로 근골격계 통증부위를 보고한 연구[24]와 어깨, 허리, 손목,

목의 순서로 보고한 연구[8]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손목과 손을 주로 사용하며 치료하는 작업치료사의 업무특성에 따른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높은 허리 통증의 빈도가 국내외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25-26]. 허리에 통증을 발생시키는 요인 중에는 상체를 회전하거나 구부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며, 환자를 하루에 6~10회 이동시키는 치료사는 이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치료사에 비해 더 큰 통증을 유발한다고 하였다[26]. 작업치료사를 비롯한 모든 치료사들이 허리 통증에 대한 예방책과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성희롱 실태에서는 여성 작업치료사의 71.4%가 언어적 성희롱을 경험하였으며, 48.6%가 시각적, 신체적 성희롱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언어적 성희롱 경험(39.0%)이 신체적 성희롱 경험(15.9%)보다 더 많았는데[27],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언어적 성희롱을 경험했을 때, ‘화가 나고 매우 불쾌하다(49.2%)’, ‘약간 불쾌하다(19.5%)’고 느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그만하라고 얘기한다(36.8%)’, ‘무시(28.1%)’ 순으로 응답했다. 대부분 성희롱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피하고 개인적 차원의 간접적인 대처를 사용하였다[27-28]. 향후 보건의료직을 비롯한 모든 직장에서 성희롱 발생 시 올바른 대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1년 동안 성희롱을 목격하거나 들은 횟수는 2~5회(43.2%), 6~10회(14.1%)로 성희롱 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7]. 이와 같이 성희롱은 학력과 관계없이 사회 안에 넓게 퍼져있으며[29], 특히 병원에서는 환자, 보호자, 상사, 동료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와 잦은 이직으로 조직과 사회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되어야 한다.

여성 근로자들은 일-가정 양립의 부담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와 직무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5].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인과 일의 사이에서 곤란하다.’ 항목에서 ‘비교적 그렇지 않다.’가 61.1%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직장상사의 긍정적인 지원이 가족 친화적 조직 문화, 일-가족 갈등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30-31]. 또한 좋은 유대관계로 의지하며, 이야기를 들어주고 감정을 공유하며, 이해하는 조직 분위기가 일과 가정의 양립의 부담을 줄인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이 20대인 미혼여성이 많았다. 이는 작업치료 면허 소지자 적으며, 사회적으로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연령과 직책이 낮을수록 직무의 자율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지며, 결국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 사료된다[32-34].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근무하는 여성 작업치료사들의 직무 실태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해 시행하였다. 설문 대상자들의 연령, 근무기관, 고용형태 등이 편향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체 여성 작업치료사의 근무 실태로 확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여성 작업치료사의 직무 실태를 알아보고 이로 인한 문제를 파악하여 근무 환경 개선, 직무 스트레스와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여성 작업치료사의 장기간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직무 스트레스는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적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근무로 인해 피로를 느낀다.’, ‘치료 이외의 것까지 신경써야할 때가 있다.’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손목과 손(90%), 어깨(86%), 목(69.7%), 허리(68.6%) 순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심한 경우 일상생활에서까지 지장을 받고 있었다. 성희롱 실태에서는 71.4%가 언어적 성희롱을 경험하였으며, 이로 인해 ‘화가 나고 매우 불쾌하다(49.2%)’, ‘그만 하라고 얘기한다(36.8%)’, ‘무시(28.1%)’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희롱 경험 시 대부분 무시하거나 피하고 개인적 차원의 간접적인 대처를 사용하였으며, 최근 1년 동안 성희롱을 목격하거나 들은 횟수가 43.2%로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 내 문화에서는 ‘개인과 일의 사이에서 곤란하다.’에서 ‘비교적 그렇지 않다.’ 항목이 61.1%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여성 작업치료사들이 겪고 있었던 근골격계 질환과 성희롱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비롯해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References

- [1] S. R. Ahuja, K. D. Hong, K. S. Hong, "The Rapport Multimedia Conferencing System: A Software Overview", *Proc. of 2nd IEEE Conference on Computer Workstations*, vol. 53, no.1, pp. 52-58, March, 1988. DOI: <https://doi.org/10.1145/45410.45411>
- [2] K. R. Kim, G. Y. Cho, Y. Y. Han, J. Y. Kim, "A Study on Female Employees Work-Life Balance and Health Status: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tress", *The Journal of Asian Women*, vol. 53, no. 1, pp. 91-120, 2014.
- [3] Y. K. Kim, "Need Analysis for the career Building and Reemployment Plans of Career Interrupted, Highly Educated Women", *The Women's Studies*, vol. 73, no. 2, pp. 85-118, 2017.
- [4] Statistics Korea. (2015). *March 2015 Employment Trends*.
- [5] J. L. Herr, C. D. Wolfram, "Work environment and opt-out rates at motherhood across high-education career paths" *Industrial & Labor Relations Review*, vol. 65, no. 4, pp. 928-950, 2012. DOI: <https://doi.org/10.1177/001979391206500407>
- [6] H. S. Ryoo, I. B. Jang, Y. B. Yeom, "The Survey Research and Policy Implications for Reemployment of Career-Interrupted Women", *The Gyeong-I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vol. 13, no. 1, pp. 51-75, 2013.
- [7] H. Y. Kim, B. Y. Sun, S. D. Kim, "Women's late marriage and low fertility",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0.
- [8] H. S. Jung, H. Y. Kim, H. K. Lee, Y. J. Yi, Y. S. Kwon,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the Factors of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of Married Working Women",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 10, no. 1, pp. 93-109, 2001.
- [9] G. M. Kim, "Musculoskeletal Pain and Job Stress of Physical Therapists Therapis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Wonju, 2005.
- [10] S. C. Kim, J. K. Tak, "A Study on the Influence of Role overload and Work-family Conflict on Job Stress: Mediating Role of Perceived Control of Tim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15, no. 1, pp. 35-49, 2010. DOI: <https://doi.org/10.17315/kjhp.2010.15.1.003>
- [11] J. W. Go, Y. J. Seo, H. Y. Park, "The Effect of Job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Hospital Employees",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vol. 29, no. 2, pp. 295-310, 1996.
- [12] J. J. Chung, "The Effect of Hospital Environment on Employee's Job Stress",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al Health Society*, vol. 28, no. 3, pp. 72-76, 2002.
- [1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tatistical Year Book 2013*.
- [14] J. A. Kwon, J. H. Roh, S. J. Chang, J. U. Won, S. H. Sim, "Factors Affecting the Job Satisfac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 of *Occupational Therapy*, vol. 15, no. 1, pp. 117-130, 2007.
- [14] D. S. Han, M. Y. Jung, E. Y. Yoo, B. I. Chung, "The Factors of Work-Related Stress in Occupational Therapists Working in Korean Hospital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vol. 16, no. 1, pp. 109-118, 2008.
- [15] E. Wressle, B. Oberg, "Work-Related Stress Among Occupational Therapists in Sweden", *British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vol. 61, no. 10, pp. 467-472, 1989.
DOI: <https://doi.org/10.1177/030802269806101011>
- [16] D. M. Bailey, "Reasons for Attrition From Occupational Therapy",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vol. 44, no. 1, pp. 23-29, 1990.
DOI: <https://doi.org/10.5014/ajot.44.1.23>
- [17] Y. J. Cha, "Comparative Study on the Impact Factors in Job Stress in Occupational Therapists Working in Korea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2, no. 6, pp. 380-389, 2012.
DOI: <https://doi.org/10.5392/JKCA.2012.12.06.380>
- [18] I. Kuorinka, B. Jonsson, A. Kilbom, H. Vinterberg, F. Bieringsorensen, G. Andersson, "Standardized nordic questionnaire for the analysis of musculoskeletal symptoms", *Applied Ergonomics*, vol. 18, no. 3, pp. 233-237, 1987.
DOI: [https://doi.org/10.1016/0003-6870\(87\)90010-X](https://doi.org/10.1016/0003-6870(87)90010-X)
- [19] J. Y. Lee, "Inquiry into the Realities of Sexual Harassment of Nurse, Employed in University Hospital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3.
- [20] H. Morgan, F. J. Milliken, "Keys to action: Understanding differences in organizations' responsiveness to work and family issues", *Human Resource Management*, vol. 31, no. 3, pp. 227-248, 1992.
DOI: <https://doi.org/10.1002/hrm.3930310308>
- [21] H. R. Kang, H. J. Lim, "Work-Family Conflict and Career Commitment of Married Working Women",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 5, no. 2, pp. 1-14, 2000.
- [22] S. I. Lee, "Employed Mothers' Work-Family Conflict and Family-Supportive Organizational Culture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06.
- [23] Y. A. Yang, J. G. Hur, Y. M. Noh, G. C. Lee, "The Study of Job Stress in Occupational Therapist", *Journal of the Ergonomics Society of Korea*, vol. 26, no. 3, pp. 1-9, 2007.
DOI: <https://doi.org/10.5143/JESK.2007.26.3.001>
- [24] M. J. Kwon, S. M. Kim, "A survey on the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in Physical Therapist in Daegu", *The Korean Society of Physical Therapy*, vol. 13, no. 1, pp. 151-160, 2001.
- [25] T. Chandola, P. Martikainen, M. Bartley, E. Lahelma, M. Marmot, S. Michikazu, "Does conflict between home and work explain the effect of multiple roles on mental health? A comparative study of Finland, Japan, and the UK",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vol. 33, no. 4, pp. 884-893, 2004.
DOI: <https://doi.org/10.1093/ije/dyh155>
- [26] G. Warren, M. Alison, S. Claire, H. Jan,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affecting members of the Chartered Society of Physiotherapy", *Physiotherapy*, vol. 91, no. 3, pp. 138-147, 2005.
DOI: <https://doi.org/10.1016/j.physio.2005.06.001>
- [27] S. H. Cho, "Nurse's awareness of sexual harassment and its reality, and Its influence on working condition in university hospitals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of Medicine and Science, Incheon, 2012.
- [28] D. H. Kim, K. S. Kim, "A Research on the Actual State of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on the girl students in Cheju National University", *Journal of Student Guidance*, vol. 30, no. 1, pp. 57-108, 2001.
- [29] H. K. Moon, "Understanding sexual harassment in the school", Seoul, Korea: Kyoyookbook, 2010.
- [30] S. C. Clark, "Work cultures and work/family bal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58, pp. 348-365, 2001.
DOI: <https://doi.org/10.1006/jvbe.2000.1759>
- [31] L. T. Thomas, D., C. Ganster, "Impact of family-supportive work variables on work-family conflict and strain: A control perspectiv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80, pp. 6-15, 1995.
DOI: <https://doi.org/10.1037/0021-9010.80.1.6>
- [32] A. Y. Young, G. H. Jin, M. N. Young, G. C. Lee, "The Study of Job Stress in Occupational Therapist", *Journal of the Ergonomics Society of Korea*, vol. 26, no. 3, pp. 1-9, 2007.
DOI: <https://doi.org/10.5143/JESK.2007.26.3.001>
- [33] J. J. Kim, J. H. Roh, J. U. Won, S. Y. Lee, S. J. Chang, "The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al Stress and Burnout among Occupational Therapist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vol. 22, no. 3, pp. 173-182, 2010.
- [34] E. Y. Park, E. J. Kim, "Job Stress and Self-efficacy of Occupational Therapist",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8, no. 10, pp. 208-216, 2008.

이 재 홍(Jae-Hong Lee)

[정회원]



- 2014년 2월 : 건양대학교 대학원 작업치료학과 (보건학석사)
- 2014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대학원 작업치료학과 (박사과정)
- 2015년 3월 ~ 현재 : 가톨릭상지 대학교 작업치료과 교수

<관심분야>

노인작업치료학, 인지작업치료학

송 예 원(Won-Ye Song)

[정회원]



- 2012년 2월 :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보건학사)
- 2016년 2월 :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보건학석사)
- 2016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보건학과 작업치료전공

<관심분야>

성인 및 아동 작업치료

차 태 현(Tae-Hyun Cha)

[정회원]



- 2009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작업치료전공)
- 2014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작업치료전공)
- 2013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 2016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생명윤리위원

<관심분야>

신경계작업치료, 연하재활, 직무분석